

9/21(월) 시편 묵상 22

시 84:1-4

본 시는 고라 자손의 두 번째 연속물의 첫 시로서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축제 중에 부르는 시온의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네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연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연에서는 '길'이 나오는데 이는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제 3연은 시인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악인의 장막과 비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로서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 주위를 순례하며 노래하는 이 시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 고라의 자손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이 갈라져 수많은 고라의 자손들이 산 채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민 16:1-2,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 16:31-33, "그(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처럼 과거의 엄청난 죄로 인한 수치와 상처를 입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선조들의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한 날'은 '천 날'과 비교법으로서 이 성전 축제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악인의 장막'은 고라의 자손들이 교만하여 한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맡은 역할로서 고라의 자손들도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민 4:1-20 고핫 자손의 임무가 기록되었다).

성전의 아름다움

시인은 성전을 여러가지 용어들로 표현합니다. 먼저, 시인은 성전을 '주의 장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사람이 사는 '거처'를 뜻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주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처인 그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합니다(**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는 원어적으로 '야훼의 뜰'로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곳은 축제일에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시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인은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성전을 주의 집으로 표현합니다(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세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웨’로서 말입니다. 이처럼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참새와 제비가 머무는 보금자리로서의 성전의 비유는 4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복있는 자들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느 13:4-5,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전체적으로 1-4절 말씀은 앞의 두 절은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었다면 3-4절은 성전 안에서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성전을 향하여 찬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인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코비드 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여러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오기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3:1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임상순<인도>, 정안나<중동>, 정안진<대만>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